

[새얼굴] 이건국 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“잘사는 농어촌 위해 신규사업 발굴 최선”



이건국 지사장

“잘사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”

최근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에 취임한 이건국 지사장은 “고향인 정읍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”면서 “지역 농업인과 항상 가까이에서 소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겠다”고 포부를 밝혔다.

이 지사장은 “재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태인 출생인 이 지사장은 태인종합고등학교를 거쳐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했으며, 1995년 한국농어촌공사에 입사했다. 새만금사업단 조사설계부장과 전북지역본부 기반사업부장 등을 역임했다.

/정읍=박기섭 기자·전북취재본부장 parkks@kwangju.co.kr